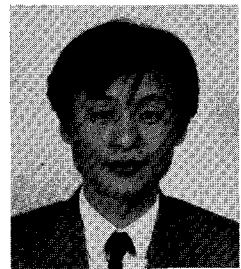


축산 소비자운동 제창



양 경 덕

(주)과학축산 마케팅부 부장

쇠고기 국내가격이 13,194원, 국제가격은 3,600원. 돼지고기는 각각 7,778원과 2,300원. 분유는 6,944원과 1,400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격차이는 이윤을 노린 수입급증을 초래하고 있다(동아일보 91년 10월 17일자). 국제가격과 차이가 많은 참깨, 땅콩, 고추 등 대부분의 농산물과 수산물도 물론 등유와 경유 등도 마찬가지이다. 주곡인 쌀의 경우에도 이젠 협박, 공갈조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근대산업 발전의 기수로서 해가 지지않는 대영제국의 영화를 누렸던 영국이 산업화에 밀려 초토화되었던 농업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자국 농업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유럽공동체(EC) 가입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각국의 세월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금 세계는 이데올로기와 군사패권주의가 물러가고 경제부흥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국의 농업기반 확충이 절대적이

며 그것은 핵무기 이상의 힘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 나아가 농축산업의 확보는 수자원과 국토보존이라는 절대 명제의 최대요건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자국농업의 보호·육성을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농·축산인은 개인의 입지로서가 아니라 역사인으로서 굳게 일어서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갔다. 정부도 이미 등을 돌

렸다고 한탄하는 소리도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물 건너 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 말세론도 횡행되고 있다.

반면, 이 민족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국운이 다시 일어서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역사인식도 있다. 지금을 하나의 난세로 치고, 모두가 뿌리를 털고 떠나고 방황하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반드시 올바른 길을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떠난 자들이 돌아오고 돌아올 탕아들을 위해 고향을 지키는 일을 다름아닌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역사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반동으로써 난세는 영웅을 낳고, 위기는 극복하려는 응전의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큰 눈으로 본 역사인식이다.

농촌·농민이 이 나라 역사의 숭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온 밑거름이었 듯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을 갈고 다듬어 전열을 가다듬는 일일 것이다.

지금 세계는 첨단산업 육성과 자국농업 보호라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어떠한 무역장벽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떠한 무역보복이나 침투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를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모순(矛盾)에 빠져 있다.

뚫는 데도 한계가 있고,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 승리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기보다 정신력이며, 그 정신력의 집중력이다. 그 정신력의 척도가 국민들의 소비의식과 근검·절약 등 생활태도라는 것이 새삼 부각되고 있으며 그러한 면에서 통일독일과 일본이 또다시 가장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애기가 너무 확대된 것 같지만, 이 사회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건전한 소비풍토이다. 외제 선호사상이나 사치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이상 자국 산업은 무너지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도 대기업이나 가진 자는 외제를 수입해다가 비싼값에 팔아서 계속 재미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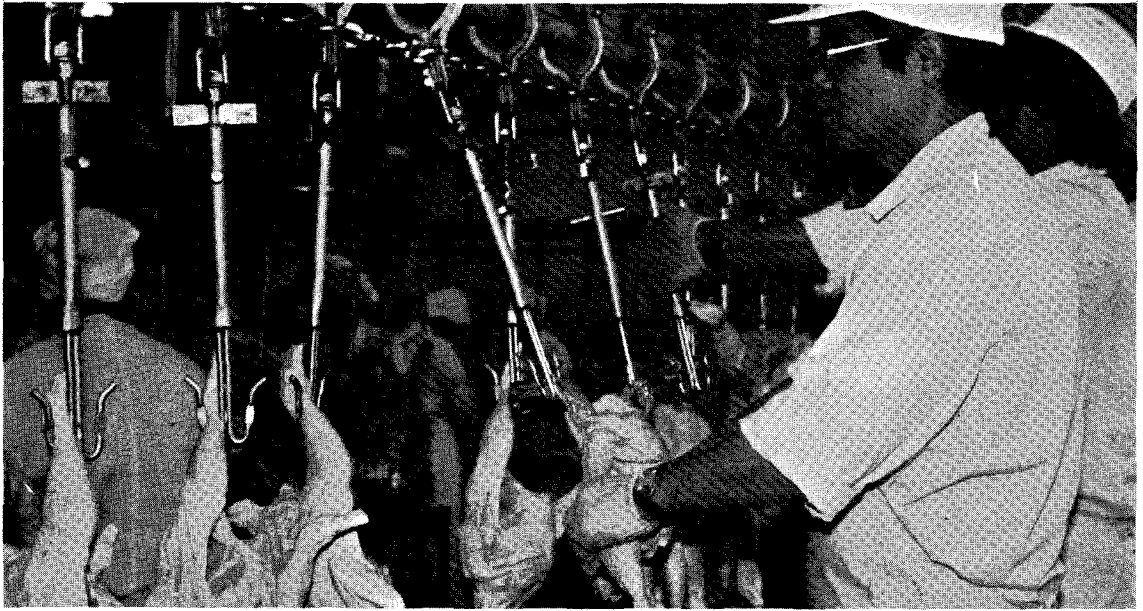
한 사람의 건전한 소비자가 건전한 기업을 만든다. 소비자 의식과 소비자의 수준이 기업의 의식과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수준높은 소비자 앞에 사이버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기업은 건전한 소비풍토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그 기업이 바로 설 수 있다. 건전한 소비자, 건강한 사회속에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축산업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닭사료 몇 톤, 영양제 몇 통, 소화제, 생균제, 항생제 몇 kg씩

하는 단순 구분으로 생산재를 구입하는 축산인에게는 그만큼 헛점이 많은 법이어서 싸구려 유사품들의 횡행을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더 나아가 저급상품 생산업자에게 기술축적과 고유 상품개발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더디게 만든다.

옷이나 음식 등의 소비재일지라도 소비자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 끊임없는 기술축적과 신제품 개발없이 살아남기 어려울진데 축산물 생산에 투여되는 사료, 약품 또는 기구 등의 생산재는 엄격히 그 투자 효용가치가 판단되어야 하고 투자액 이상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쓰니까 쓰고, 항생제에도 수십가지가 있는데 그냥 항생제라고 쓴다든가 또는 옛날부터 써오던 것이니까 그대로 쓴다는 식의 투자는 결국 생산비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익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대계를 위한 것이요,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건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 축산현장에 건전한 소비풍토를 심고, 축산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양축가가 좋은 상품을 구별하고 기술축산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우수상품 개발을 위해 헌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축산관련 업체에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



이다.

오늘의 한국축산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 축산기술이 한석봉의 글씨 수준이라도 되고 있는가?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어둠 속에서 떡썰기를 해오신 어머니의 떡썰기 수준처럼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온 축산인들도 많이 있으리라. 우리는 다시 보따리 싸들고 절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축산인으로서 국민소득 10,000불시대를 앞서가자면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소비자가 왕인 건전한 소비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생산성 향상없이는 궁극적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500원에 키워낸다

면 우리도 500원에 가깝게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기술축산이 정착되고 그 기술이 축적되어 저마다의 노하우(Know-how)가 갖춰져야 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양축가의 의식의 전환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선후가 문제가 아니지만 이보다 앞서서 사료업체나 제약업체 또는 이와 관련된 단체, 기관 등 한국축산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부터 의식의 전환을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축산을 선도하면서 공존해야 할 업체나 단체들이 벼랑 앞에 선 한국축산의 옆구리만을 짊어 먹고 있다면 이는 동반자살과 다를 바 없다.

다른 업체의 유사품이나 만들어서 헐값에 팔아 넘기고 중간

유통업자들은 마진 좋은 것만 열심히 골라 팔고 아직도 10년전 축산을 하고 있거나 싼 것만 찾고 있는 양축가들의 숫자가 많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제살 뜯어 먹다가 함께 무너질 뿐이다.

장가도 못가고 대가 끊어져서야 이 나라가 제대로 일어설 수 없다. 우선 도시로 나갔던 처녀들이 돌아오고, 따라서 탕아들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농촌과 축산업이 진정으로 질과 양에서 모두 현대화되고 경제적으로, 생활여건상으로 도시 보다 앞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농촌을 가꾸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역사를 등에 업고
..... 양계